



4면

전북 학생들 독서열기 후끈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음 2월 1일) 제393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총성!” 35사단 2026년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18일 전북 임실군 육군 35사단 캠프수리에서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 남원 귀석지구, 농식품부 ‘지하수 함양사업’ 선정

### 시설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올해부터 4년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지하수 함양사업 공모에 남원 귀석지구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수 함양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물 부족이 심각한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비 지원 신규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남원 귀석지구를 포함한 2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하도리·상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65억원(국비 46억원, 지방비 19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

가 밀집된 62.3ha 규모의 시설농업 단지로 그동안 농업용수와 수확 난방용 지하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루 5,900m³ 규모의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겨울철 지하수를 활용한 수확기 난방비를 약 98% 절감하고 탄소배출량도 약 99%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계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기반으로 논·밭작물 전량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 농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나아가는 계기라며, “지하수 함양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비 절감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9부 능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입법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최종 관문까지 넘어선 후,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전북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총 32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이다. 당초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21개 과제에 더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11개 특례가 추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한층 강화됐다.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도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산업 부문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가 신설되면서 완성차 및 특장차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설비 제작을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생산 공정의 유연성을 높여 기

### 국회 행정안전위서 의결

### 법사위·본회의만 남겨

### 산업 수요 반영 11개 포함

### 총 32개 특례 조항 ‘핵심’

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 산업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환경 산업 전환과 자원순환 경제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맞물리면서,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교통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통해 버스 및 교통 취약 지역 노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유지가 어려웠던 노선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능해져, 주민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농생명 산업 분야 역시 전북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영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확대됐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한병도·안호영·이원택·이성운·이춘식·조배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유사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입법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타 특별자치단체 관련 법안들과의 동시 처리 문제로 세 차례나 처리가 보류되는 등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전북도는 강원·제주·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섰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 통과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쟁점 사항을 조율하는 등 행정과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점도 이번 성과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전북도는 이번 2차 개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3차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수준에 준하는 특례 보완과 함께, 새만금 투자 확대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말 안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자치권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 솔루스첨단소재 OLED 공장

## 익산 합열농공단지 조성

### 376억원 투자·54명 고용... TV·차량용 OLED 소재 생산

### 2024년 유턴기업 지정 후 추진... 첨단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OLED 소재와 전자박을 생산하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익산 합열농공단지에 제조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사진 2면)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김대중 도의원, 김태형 솔루스첨단소재 사장, 협력사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번 공장은 총 37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5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생산품은 TV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OLED 소재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발맞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OLED 소재와 전자박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익산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전북 합열기업이다. 헝가리·캐나다·중국 등 해외에도 생산거점을 운영 중이다. /이만호 기자

특히 4.5μm 초박형 전자박과 고강도 전자박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의 고밀도화·경량화를 구현하고 있다. OLED 분야에서도 8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2024년 유턴기업 지정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해외 생산기지와의 연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공장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OLED 생산공장 준공을 계기로 익산이 소부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